



# 탱탱한 육질 안고 방어가 돌아왔다

### 산란 위해 겨울철 왕성한 먹이 활동 고조하고 기름져 최남단방어축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오는 25일까지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방어는 살이 잔뜩 올라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때마침 방어 축제가 3년만에 정상 개최됐다고 하니 방어를 즐기기에 이만한 때가 없다.

▶산란지 옮겨가지만 방어는 역시 제주, 산란 준비하며 살찌운 방어=방어는 온대성회유어종이다. 수온에 민감해 자신이 살기 좋은 15-18℃의 수온을 찾아 서식지를 옮겨 다닌다. 봄 여름엔 동해 북부 해역에 서식하다가 이맘때쯤 비교적 수온이 따뜻한 제주 바다를 찾는다.

방어는 3-6월에 산란기를 맞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몸 안에 영양분을 가두려 겨울철에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한다. 또 겨울 깊은 바닷속 거센 조류 가르며 다니기 때문에 이 시기 잡히는 방어는 고소하고 기름지며 육질도 탄탄하다.

최근 들어 방어 주산지는 제주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난류성 회유어종인 방어가 강원도 동해안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강원도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 수산물도 방어(5207t)였다. 제주도 어획량의 2배가량이다. 이리다보니 강원 동해

안에서 잡힌 방어가 제주까지 공급된다.

하지만 미식가들은 제주 바다에서 잡힌 방어를 더 선호한다. 강원도에서는 방어가 다니는 길목에 대형 고정 그물(정치망)을 설치해 잡는 반면, 제주는 싱싱한 자리돔을 바늘에 끼워 바다에 던져 잡아 올리는 외줄낚시 방식으로 조업한다. 외줄낚시는 그물보다 낫은 가격으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특방어는 4만원가량, 대방어는 2만원가량, 중방어는 1만원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방어는 건강에도 좋다. 방어에는 불포화지방산(DHA)과 비타민D가 풍부해 고혈압·동맥경화,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방어 기름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가 들쭉였다. 3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온 최남단 방어축제를 즐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모슬포에 모였다. 이날 개막한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에서 '청정 바다의 흥과 멋과 맛의 향연'을 주제로 도민과 관광객을 만나고 있다. 최남단 방

어는 크면 클수록 맛있다. 8kg 이상을 특방어, 4~7.9kg을 대방어, 4kg 미만을 중방어로 분류하는데 최근 제주에서 특방어는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개막한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맨손으로 방어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9만3000원대, 대방어는 4만7000원대, 중방어는 1만2000원대에 위탁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특방어는 4만원가량, 대방어는 2만원가량, 중방어는 1만원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축제 기간 행사장 일대에서는 방어 맨손 잡기, 어시장 경매, 가두리 낚시체험, 대방어 시식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해녀가요제와 테약 만들기, 투호 던지기, 어린이체력대항 등 즐길거리도 준비됐다. 축제장을 방문하면 품질 좋은 방어와 부시리를 최대 30%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매일 열리고 있다.

강경욱 최남단방어축제위원장은 "마라도의 특산물인 자리돔과 고등어를 먹고 자란 제주 방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축제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민기자 hasm@ihalla.com

어어축제는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관광객과 도민 모두 여유있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한 달에 걸쳐 분산 운영되고 있다.

축제 기간 행사장 일대에서는 방어 맨손 잡기, 어시장 경매, 가두리 낚시체험, 대방어 시식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해녀가요제와 테약 만들기, 투호 던지기, 어린이체력대항 등 즐길거리도 준비됐다. 축제장을 방문하면 품질 좋은 방어와 부시리를 최대 30%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매일 열리고 있다.

강경욱 최남단방어축제위원장은 "마라도의 특산물인 자리돔과 고등어를 먹고 자란 제주 방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축제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민기자 hasm@ihalla.com

## 영화觀-새로 나온 영화

### '부부'라는 시스템... 청춘의 삶·사랑

▶요정=경쟁 카페 사장이던 영란(류현경 분)과 호철(김주현)은 부부가 된 뒤에도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따로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한 카페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페 수익은 집안 내 권력으로 직결되고, 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만난 석(김신비)이 이들 부부의 카페 일을 돕게 되면서 두 사람의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석이 일을 돕는 가게의 하루 매출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기적이 벌어지면서다.

영란과 호철은 각자의 카페에 석을 데려오기 위한 눈치 싸움을 시작하고, 부부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영화 '요정'은 한 동네에서 각자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 영란과 호철이 '매출 요정' 석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드라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온전한 부부가 되지는 못했다. 상대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한 쌍의 부부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랬던 이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석이라는 인물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연출을 맡은 신택수 감독은 "흔히들 '부부'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인간이 속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부부'라는 시스템에 관한 영화"라며 "전형적인 따뜻한 멜로 영화로만 보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79분. 12세 이상 관람가.

▶그 겨울, 나는=29살 동갑내기 경학(권다함)과 혜진(권소현)은 취업준비생 커플이다.

돈은 없지만 자취방에서 알콩달콩 생활하며 서로의 꿈을



영화 '그 겨울, 나는'.

지원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경학 친모의 빚 2000만원과 혜진의 취업 성공으로 조금씩 균열한다.

빛을 갖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경학은 혜진에게 학업과 병행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더 좋은 '홀'을 잡기 위한 라이더들 간의 기 싸움, 식당 사장과 손님들의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지쳐간다.

혜진은 퇴근 후 집에서 휴대 폰만 쳐다보며 맥주를 마시는 경학이 답답하기만 하다. 조금씩 돈을 지원해줄 테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고 제안도 해보지만 경학은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영화 '그 겨울, 나는'은 가난한 청춘의 사랑과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경제적 지원을 해 줄 부모님도 마땅한 학벌도 없는 경학은 곳곳에 경찰의 꿈을 키워나가지만 현실 앞에 좌절하고 만다.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배달 일로 단기간에 빚을 갚겠다는 목표와도 견집을 수 없이 멀어진다.

반면 엄마의 지원 아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꽤 유창한 일 분야 실력까지 갖춘 혜진은 원하던 공기업 입사에는 실패했지만, 중소기업 취직에 성공하면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열 기회를 얻는다.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멀어져가는 과정, 돈에 꿈을 저당 잡힌 경학의 모습은 관객에게 지울 수 없는 씁쓸함을 안긴다. 100분. 15세 이상 관람가.

연습뉴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 어선들이 방어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꿈의 의자

당신이 채워주신 자리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

A-Hope

### 출연



김정태 배우, 진민호 가수, 문초희 트로트가수/국악인, 양경원 배우



이건택 가수, 최백나 뮤지컬배우, 유효진 뮤지컬배우, 박슬기 뮤지컬배우



박준수 뮤지컬배우, 문주용 배우/싱어송라이터, 고수민 뮤지컬배우/퍼커션

### 연주



민립 베이스기타, 김은수 일렉기타, 정하일 드럼, 최고도 건반



박은영 진반/블루즈, 한해수 첼로, 김준수 바이올린

공연날짜 2022년 12월 10일(토) 저녁 7시  
공연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티켓가격 일반 55,000원 / 학생10%할인(49,500원)  
수험생할인30%(38,500원) / (단체할인 30% 이상)

후원 내용 제주대 내 환아들의 수술비 일부, 치료비, 교통비 (제주 환아들은 종종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항공요금 외 많은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병세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치료, 불우 환우의 다양한 교육비 지원 등

주최·주관 소리굽쇠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 교보생명 제주 지원단 | 제주 대웅황토리조트 | (주)에이드 | 그래픽그래피 | 제주 KCTV | 강남성모안과의원

인터넷 예매 인터파크 티켓예매 전화 예매 및 문의 소리굽쇠 0502-1919-0501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064-752-3300